



# 매체포교 이정표 다시 세운다

## 불교 언론인의 자세

### 언론인·포교사 결국은 하나의 길



**최정희**  
(본지 논설고문)

올봄 나는 불교신문 A기자로 부터 점심 초대 전화를 받았다. 그는 입사 10주년을 맞았다며 10년전을 상기했다.

“그때 저를 면접 하시면서 합격하면 10년간 잘 근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만 10년을 맞아 입사 당시 모시고 일했던 선배님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날 나는 좋은 기분이 산뜻했다.

현대불교신문 B기자가 어느날 자기가 펴낸 책 한권을 우편으로 보냈다.

“평소 지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인사와 함께, 몹시 반기웠다.

입사 10주년에 선배에게 식사를 내지 않는다고 나무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책을 출간했다고 선배에게 꼭 보내야 한다는 법도 없다. 안해도 무방한 일을 함으로써 타인에게 활력과 기쁨을 불어 넣어 주는 것. 그것은 곧 화합과 상생의 종자를 심는 이타행이다.

앞에 소개한 2편의 작은 이야기 속에는 선후배의 정情, 감사, 화합, 상생 등 선(善)을 지향하는 아름다움이 담겨 있다.

비록 작은 이야기이지만 나는 이런 행(行)을 ‘불교적 삶’의 한 단면이라고 말하고 싶다.

불교 언론인은 ‘불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불교적 가치관’으로 살아야 한다. 불교 언론인은 대중을 교화하는 포교사이며 수행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가 기사만 잘 쓰면 되지 불교적 가치관이 불교언론인의 자세와 무슨 상관인 있단 말인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불교언론인은 ‘불교+언론인’ 이기에 불교적 가치관과 상관인 있는 것이다.

기교로 쓴 기사가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불교적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正見) 판단하여 쓴 기사야야 대중을 감응시켜 부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다.

거듭 강조하면 불교언론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동의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 불교적 가치가 우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빠르게 알아야 한다. 그 첫걸음은 불교교리를 체계적으로 폭넓게 공부하는 것이다.

교리를 제대로 알면 부처님 가르침을 시의 적절하게 활용하는 좋은 기획을 할 수 있다. 일어나고 있는 사건따라잡기가 아니라 스스로 창의적인 기획물을 만들어 낼 줄 아는 기자가 되어야 한다. 불교관이 바로 서 있으면 세상의 흐름을 불교적 시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불교와 세상을 접목한 입체적인 기획물로 지

어느날 금강경독송회 김재웅 법사님이 금강경 독송을 권했다. 그때도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법사님의 강요에 나는 그러겠다고 답했고 그 약속을 지키느라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를 시작했다.

버스·사무실 등 가리지 않고 독송을 했으나 여의치 않아 잠자기전 1독으로 고정시켰다. 나도 모르게 향을 사르고, 독송 전 녹차로 입을 항기롭게 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렇게 천일을 계속하는 동안 주위에선 내게 얼굴이 좋아졌다고 이구동성으로 인사를 했다. 그것이 바로 가피아니겠는가. 그 가피가 내 생각을 바꾸고, 내가 쓴 기사에도 스며들었을 것이다.

백일기도를 해본 기자가 백일기도를 한 불자들이 인터넷 했을때와 인쇄본 기자가 기사를 썼을때 그 맛이 다를 것이다. 불교언론인은 불교 전문가이다. 그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일간지 기자와

의 경쟁에서도 뒤쳐서는 안 된다. ‘현대불교’에 근무할 때다. 종교계 출입을 시작할 때 얼마 안됐을 뿐 아니라 불교를 잘 모른다는 D일 보 종교담당 기자가 서초구 불교협회 발족 기사를 썼다. 서초지역의 입지적 조건을 감안하여 서초불교협회의 역할과 기대에 대해 교계 기자보다 한 발 앞서 내다본 그 기사를 읽고 나는 자조를 금지 못했다. 그보다 앞서 불교신문에 근무할때 C일보가 해인사 팔만대장경에 관해 특종을 했을 때 주간지인 불교신문은 그 기사를 받는 셈이 됐다. 그때 편집국장 황봉 스님은 일간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느냐며 그 이상의 기사를 요구했다. 그렇다. 불교언론인은 궁지와 자부심을 갖고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불교전문기자가 되어야 한다.

백일기도를 해본 기자가 백일기도를 한 불자들이 인터넷 했을때와 인쇄본 기자가 기사를 썼을때 그 맛이 다를 것이다. 불교언론인은 불교 전문가이다. 그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일간지 기자와의 경쟁에서도 뒤쳐서는 안 된다. ‘현대불교’에 근무할 때다. 종교계 출입을 시작할 때 얼마 안됐을 뿐 아니라 불교를 잘 모른다는 D일 보 종교담당 기자가 서초구 불교협회 발족 기사를 썼다. 서초지역의 입지적 조건을 감안하여 서초불교협회의 역할과 기대에 대해 교계 기자보다 한 발 앞서 내다본 그 기사를 읽고 나는 자조를 금지 못했다. 그보다 앞서 불교신문에 근무할때 C일보가 해인사 팔만대장경에 관해 특종을 했을 때 주간지인 불교신문은 그 기사를 받는 셈이 됐다. 그때 편집국장 황봉 스님은 일간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느냐며 그 이상의 기사를 요구했다. 그렇다. 불교언론인은 궁지와 자부심을 갖고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불교전문기자가 되어야 한다.

복유령 어느나라의 작은 지역신문이 탐사취재 등으로 중앙지 못지 않은 역할을 한다는 보도를 보았다. 오늘의 불교언론이 그렇게 되길 희망하고 축원하면서, 불교언론인 소양교육을 위한 계절학교 같은 교육기구가 생기길 제안해 본다.

내가 만약 다시 평가자로 될 수 있다면 거문고 줄을 너무 느슨하게 너무 조이지 않게 매면서 연꽃처럼 피어나는 그런 기자가 되고 싶다.

### 불교적 가치관 확고해야 안목 생겨 전문성 갖추기 부단한 노력 따라야

면을 빛내고 그 지면은 사회의 목탁이 될 수 있다.

아무리 교리에 해박해도 믿음이 없고 비불자라면 그는 불교언론인 자격이 없다. 불교언론인은 반드시 삼보에 귀의한 불자이어야 한다. 내가 아는 교계신문의 C기자는 어느 사찰의 중고등학생회, 청년회 출신이다. 그는 지금도 절에 나가 후배들을 지도하고 답사 프로그램을 만든다. 올 여름에도 대마도 답사를 직접 인솔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기사화했다. 제적사찰을 갖고 신행활동을 할때 불자들의 신행 24시를 현장감 있게 전할 수 있다.

불교언론인에게는 신문제작이 그대로 정진이지만 일 외에도 자기를 갈고 닦는 수행정진이 필요하다. 평가자 시절, 누가 나에게 사경을 권하면 나는 이렇게 답했다. “제가 1주일 동안 쓰는 기사중 부처님 또는 부처 ‘佛’자가 얼마나 많은데 사경을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 기사가 곧 사경인데요” 훗날 나는 얼마나 방자하고 철없는 말이었는지 알았다.

어느날 금강경독송회 김재웅 법사님이 금강경 독송을 권했다. 그때도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법사님의 강요에 나는 그러겠다고 답했고 그 약속을 지키느라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를 시작했다.

버스·사무실 등 가리지 않고 독송을 했으나 여의치 않아 잠자기전 1독으로 고정시켰다. 나도 모르게 향을 사르고, 독송 전 녹차로 입을 항기롭게 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렇게 천일을 계속하는 동안 주위에선 내게 얼굴이 좋아졌다고 이구동성으로 인사를 했다. 그것이 바로 가피아니겠는가. 그 가피가 내 생각을 바꾸고, 내가 쓴 기사에도 스며들었을 것이다.

백일기도를 해본 기자가 백일기도를 한 불자들이 인터넷 했을때와 인쇄본 기자가 기사를 썼을때 그 맛이 다를 것이다. 불교언론인은 불교 전문가이다. 그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일간지 기자와

의 경쟁에서도 뒤쳐서는 안 된다. ‘현대불교’에 근무할 때다. 종교계 출입을 시작할 때 얼마 안됐을 뿐 아니라 불교를 잘 모른다는 D일 보 종교담당 기자가 서초구 불교협회 발족 기사를 썼다. 서초지역의 입지적 조건을 감안하여 서초불교협회의 역할과 기대에 대해 교계 기자보다 한 발 앞서 내다본 그 기사를 읽고 나는 자조를 금지 못했다. 그보다 앞서 불교신문에 근무할때 C일보가 해인사 팔만대장경에 관해 특종을 했을 때 주간지인 불교신문은 그 기사를 받는 셈이 됐다. 그때 편집국장 황봉 스님은 일간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느냐며 그 이상의 기사를 요구했다. 그렇다. 불교언론인은 궁지와 자부심을 갖고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불교전문기자가 되어야 한다.

복유령 어느나라의 작은 지역신문이 탐사취재 등으로 중앙지 못지 않은 역할을 한다는 보도를 보았다. 오늘의 불교언론이 그렇게 되길 희망하고 축원하면서, 불교언론인 소양교육을 위한 계절학교 같은 교육기구가 생기길 제안해 본다.

내가 만약 다시 평가자로 될 수 있다면 거문고 줄을 너무 느슨하게 너무 조이지 않게 매면서 연꽃처럼 피어나는 그런 기자가 되고 싶다.

면을 빛내고 그 지면은 사회의 목탁이 될 수 있다.

아무리 교리에 해박해도 믿음이 없고 비불자라면 그는 불교언론인 자격이 없다. 불교언론인은 반드시 삼보에 귀의한 불자이어야 한다. 내가 아는 교계신문의 C기자는 어느 사찰의 중고등학생회, 청년회 출신이다. 그는 지금도 절에 나가 후배들을 지도하고 답사 프로그램을 만든다. 올 여름에도 대마도 답사를 직접 인솔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기사화했다. 제적사찰을 갖고 신행활동을 할때 불자들의 신행 24시를 현장감 있게 전할 수 있다.

불교언론인에게는 신문제작이 그대로 정진이지만 일 외에도 자기를 갈고 닦는 수행정진이 필요하다. 평가자 시절, 누가 나에게 사경을 권하면 나는 이렇게 답했다. “제가 1주일 동안 쓰는 기사중 부처님 또는 부처 ‘佛’자가 얼마나 많은데 사경을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 기사가 곧 사경인데요” 훗날 나는 얼마나 방자하고 철없는 말이었는지 알았다.

## 불교언론이 나아갈 길

### 참여언론시대 ‘속도’가 생명



**김종두**  
(경향신문 부국장·경향신문 불자회장)

신문 방송 인터넷언론 등 매스 미디어의 급격한 발전으로 세계는 그야말로 지구촌시대를 맞았다. 인간은 한시도 이러한 매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야 하고 있다. 매스 미디어가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정보와 급속한 발전으로 이제는 누구나 참여하는 새로운 언론시대가 도래했다.

인터넷 포털 다음 한곳의 카페만 해도 1백만 개를 훌쩍 넘어선지 이미 오래됐고 여기에 참여하는 네티즌들의 클릭 수만 하루 수천만 건에 이른 다. 인터넷 포털도 초보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뉴스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오마이뉴스를 비롯, 뉴스전문 인터넷 언론은 이미 기성언론에 도전장을 내며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해 가고 있다. 인터넷 방송 또한 상승기류를 타기 시작했으며 인터넷 텔레비전 방송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터넷 매체는 머지않은 장래에 기존 텔레비전과 신문, 라디오와의 경쟁관계를 넘어 매스미디어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지도 모른다.

앞으로는 다차원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기저의 유비쿼터스 시대도 곧 찾아올 전망이다. 보면 향후 언론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해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통신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에 따른 전자언론의 급성장으로 매스컴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종이신문은 그동안 텔레비전과 함께 균형적인 언론영역의 발전을 도모해 왔으나 새로운 매체인 인터넷 언론의 급속한 성장으로 새로운 생존방식을 요구받고 있다. 신문은 사양산업화하고 있

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영향력을 유지하며 생존할 수 있을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시대를 맞고 있다. 따라서 기존 언론의 사명과 기능 자체도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급격한 매체환경의 변화는 앞으로 더욱 더 가속화 하던지지 물러서는 않을 것이다. 매체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은 불교언론에도 변신을 요구하여 새로운 정체성 모색에 나설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동안 불교계는 큰 변화와 성장을 지속해왔다. 산중에만 있던 사람들이 도심으로 내려오기 시작했고 불자도 크게 늘면서 1천만 신도시대를 맞았다. 외형상 발전이 있었으나 인터넷의 광범한 보급과 급속한 발전으로 이제는 누구나 참여하는 새로운 언론시대가 도래했다.

인터넷 포털 다음 한곳의 카페만 해도 1백만 개를 훌쩍 넘어선지 이미 오래됐고 여기에 참여하는 네티즌들의 클릭 수만 하루 수천만 건에 이른 다. 인터넷 포털도 초보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뉴스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오마이뉴스를 비롯, 뉴스전문 인터넷 언론은 이미 기성언론에 도전장을 내며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해 가고 있다. 인터넷 방송 또한 상승기류를 타기 시작했으며 인터넷 텔레비전 방송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터넷 매체는 머지않은 장래에 기존 텔레비전과 신문, 라디오와의 경쟁관계를 넘어 매스미디어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지도 모른다.

앞으로는 다차원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기저의 유비쿼터스 시대도 곧 찾아올 전망이다. 보면 향후 언론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해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통신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에 따른 전자언론의 급성장으로 매스컴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종이신문은 그동안 텔레비전과 함께 균형적인 언론영역의 발전을 도모해 왔으나 새로운 매체인 인터넷 언론의 급속한 성장으로 새로운 생존방식을 요구받고 있다. 신문은 사양산업화하고 있

다한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영향력을 유지하며 생존할 수 있을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시대를 맞고 있다. 따라서 기존 언론의 사명과 기능 자체도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급격한 매체환경의 변화는 앞으로 더욱 더 가속화 하던지지 물러서는 않을 것이다. 매체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은 불교언론에도 변신을 요구하여 새로운 정체성 모색에 나설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동안 불교계는 큰 변화와 성장을 지속해왔다. 산중에만 있던 사람들이 도심으로 내려오기 시작했고 불자도 크게 늘면서 1천만 신도시대를 맞았다. 외형상 발전이 있었으나 인터넷의 광범한 보급과 급속한 발전으로 이제는 누구나 참여하는 새로운 언론시대가 도래했다.

인터넷 포털 다음 한곳의 카페만 해도 1백만 개를 훌쩍 넘어선지 이미 오래됐고 여기에 참여하는 네티즌들의 클릭 수만 하루 수천만 건에 이른 다. 인터넷 포털도 초보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뉴스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오마이뉴스를 비롯, 뉴스전문 인터넷 언론은 이미 기성언론에 도전장을 내며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해 가고 있다. 인터넷 방송 또한 상승기류를 타기 시작했으며 인터넷 텔레비전 방송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터넷 매체는 머지않은 장래에 기존 텔레비전과 신문, 라디오와의 경쟁관계를 넘어 매스미디어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지도 모른다.

앞으로는 다차원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기저의 유비쿼터스 시대도 곧 찾아올 전망이다. 보면 향후 언론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해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통신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에 따른 전자언론의 급성장으로 매스컴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종이신문은 그동안 텔레비전과 함께 균형적인 언론영역의 발전을 도모해 왔으나 새로운 매체인 인터넷 언론의 급속한 성장으로 새로운 생존방식을 요구받고 있다. 신문은 사양산업화하고 있

다한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영향력을 유지하며 생존할 수 있을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시대를 맞고 있다. 따라서 기존 언론의 사명과 기능 자체도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급격한 매체환경의 변화는 앞으로 더욱 더 가속화 하던지지 물러서는 않을 것이다. 매체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은 불교언론에도 변신을 요구하여 새로운 정체성 모색에 나설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동안 불교계는 큰 변화와 성장을 지속해왔다. 산중에만 있던 사람들이 도심으로 내려오기 시작했고 불자도 크게 늘면서 1천만 신도시대를 맞았다. 외형상 발전이 있었으나 인터넷의 광범한 보급과 급속한 발전으로 이제는 누구나 참여하는 새로운 언론시대가 도래했다.

인터넷 포털 다음 한곳의 카페만 해도 1백만 개를 훌쩍 넘어선지 이미 오래됐고 여기에 참여하는 네티즌들의 클릭 수만 하루 수천만 건에 이른 다. 인터넷 포털도 초보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뉴스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오마이뉴스를 비롯, 뉴스전문 인터넷 언론은 이미 기성언론에 도전장을 내며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해 가고 있다. 인터넷 방송 또한 상승기류를 타기 시작했으며 인터넷 텔레비전 방송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터넷 매체는 머지않은 장래에 기존 텔레비전과 신문, 라디오와의 경쟁관계를 넘어 매스미디어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지도 모른다.

앞으로는 다차원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기저의 유비쿼터스 시대도 곧 찾아올 전망이다. 보면 향후 언론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해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통신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에 따른 전자언론의 급성장으로 매스컴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종이신문은 그동안 텔레비전과 함께 균형적인 언론영역의 발전을 도모해 왔으나 새로운 매체인 인터넷 언론의 급속한 성장으로 새로운 생존방식을 요구받고 있다. 신문은 사양산업화하고 있

다한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영향력을 유지하며 생존할 수 있을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시대를 맞고 있다. 따라서 기존 언론의 사명과 기능 자체도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급격한 매체환경의 변화는 앞으로 더욱 더 가속화 하던지지 물러서는 않을 것이다. 매체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은 불교언론에도 변신을 요구하여 새로운 정체성 모색에 나설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동안 불교계는 큰 변화와 성장을 지속해왔다. 산중에만 있던 사람들이 도심으로 내려오기 시작했고 불자도 크게 늘면서 1천만 신도시대를 맞았다. 외형상 발전이 있었으나 인터넷의 광범한 보급과 급속한 발전으로 이제는 누구나 참여하는 새로운 언론시대가 도래했다.

인터넷 포털 다음 한곳의 카페만 해도 1백만 개를 훌쩍 넘어선지 이미 오래됐고 여기에 참여하는 네티즌들의 클릭 수만 하루 수천만 건에 이른 다. 인터넷 포털도 초보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뉴스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오마이뉴스를 비롯, 뉴스전문 인터넷 언론은 이미 기성언론에 도전장을 내며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해 가고 있다. 인터넷 방송 또한 상승기류를 타기 시작했으며 인터넷 텔레비전 방송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터넷 매체는 머지않은 장래에 기존 텔레비전과 신문, 라디오와의 경쟁관계를 넘어 매스미디어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지도 모른다.

앞으로는 다차원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기저의 유비쿼터스 시대도 곧 찾아올 전망이다. 보면 향후 언론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해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통신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에 따른 전자언론의 급성장으로 매스컴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종이신문은 그동안 텔레비전과 함께 균형적인 언론영역의 발전을 도모해 왔으나 새로운 매체인 인터넷 언론의 급속한 성장으로 새로운 생존방식을 요구받고 있다. 신문은 사양산업화하고 있

다한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영향력을 유지하며 생존할 수 있을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시대를 맞고 있다. 따라서 기존 언론의 사명과 기능 자체도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급격한 매체환경의 변화는 앞으로 더욱 더 가속화 하던지지 물러서는 않을 것이다. 매체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은 불교언론에도 변신을 요구하여 새로운 정체성 모색에 나설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동안 불교계는 큰 변화와 성장을 지속해왔다. 산중에만 있던 사람들이 도심으로 내려오기 시작했고 불자도 크게 늘면서 1천만 신도시대를 맞았다. 외형상 발전이 있었으나 인터넷의 광범한 보급과 급속한 발전으로 이제는 누구나 참여하는 새로운 언론시대가 도래했다.

인터넷 포털 다음 한곳의 카페만 해도 1백만 개를 훌쩍 넘어선지 이미 오래됐고 여기에 참여하는 네티즌들의 클릭 수만 하루 수천만 건에 이른 다. 인터넷 포털도 초보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뉴스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오마이뉴스를 비롯, 뉴스전문 인터넷 언론은 이미 기성언론에 도전장을 내며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해 가고 있다. 인터넷 방송 또한 상승기류를 타기 시작했으며 인터넷 텔레비전 방송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터넷 매체는 머지않은 장래에 기존 텔레비전과 신문, 라디오와의 경쟁관계를 넘어 매스미디어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지도 모른다.

어 한 차원 높은 새로운 도약을 이룩해야 할 기로에 섰다. 새로운 생존방식을 설정할 때가 된 것이다. 인터넷세상으로 과감히 뛰어 들어가야 하고 유비쿼터스시대 대대해야 한다. 그러나 불교계 내부를 들여다보면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한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듯하다. 인식의 전환이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불교언론은 지금까지 열악한 환경을 꿰뚫어 견디어 왔던 앞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할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단순한 믿음만으로 불교계 언론의 미래를 낙관할 수는 없다. 만사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투자를 대폭 늘리고 인력도 양성하여 새로운 목표를 향해 한단계씩 도약할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지향점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사회의 언론환경, 통신수단이 어느 곳을 향해 변화해 가고 발전해 가는지를 살펴보면 금세 알 수 있다. 거기에 불교언론이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사이버 세상과 급변하는 통신수단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언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세상의 변화를 추종할 것 아니라 변화를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만들 준비를 해야 한다. 이를 간파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다. 인터넷 세상으로 언론의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지만 기존 매체패턴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불교계 신문의 경우 아직 상당기간 그 가치는 유효하다. 장년층 신도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인이 주는 메시지는 앞으로 포교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뉴스를 중심으로 할 경우 속도감 등에서 인터넷과 경쟁이 되지 않으므로 보다 유익하고 감동적인 내용으로 구독자를 끌어올리는 제작 스타일의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요컨대 변화해가는 언론환경을 따라가면서 기존의 패턴을 개선해 보도기능과 전문 포교매체로서의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불교언론이 향후 지향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한다.

어 한 차원 높은 새로운 도약을 이룩해야 할 기로에 섰다. 새로운 생존방식을 설정할 때가 된 것이다. 인터넷세상으로 과감히 뛰어 들어가야 하고 유비쿼터스시대 대대해야 한다. 그러나 불교계 내부를 들여다보면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한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듯하다. 인식의 전환이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불교언론은 지금까지 열악한 환경을 꿰뚫어 견디어 왔던 앞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할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단순한 믿음만으로 불교계 언론의 미래를 낙관할 수는 없다. 만사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투자를 대폭 늘리고 인력도 양성하여 새로운 목표를 향해 한단계씩 도약할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지향점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사회의 언론환경, 통신수단이 어느 곳을 향해 변화해 가고 발전해 가는지를 살펴보면 금세 알 수 있다. 거기에 불교언론이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사이버 세상과 급변하는 통신수단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언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세상의 변화를 추종할 것 아니라 변화를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만들 준비를 해야 한다. 이를 간파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다. 인터넷 세상으로 언론의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지만 기존 매체패턴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불교계 신문의 경우 아직 상당기간 그 가치는 유효하다. 장년층 신도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인이 주는 메시지는 앞으로 포교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뉴스를 중심으로 할 경우 속도감 등에서 인터넷과 경쟁이 되지 않으므로 보다 유익하고 감동적인 내용으로 구독자를 끌어올리는 제작 스타일의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요컨대 변화해가는 언론환경을 따라가면서 기존의 패턴을 개선해 보도기능과 전문 포교매체로서의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불교언론이 향후 지향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한다.

어 한 차원 높은 새로운 도약을 이룩해야 할 기로에 섰다. 새로운 생존방식을 설정할 때가 된 것이다. 인터넷세상으로 과감히 뛰어 들어가야 하고 유비쿼터스시대 대대해야 한다. 그러나 불교계 내부를 들여다보면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한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듯하다. 인식의 전환이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불교언론은 지금까지 열악한 환경을 꿰뚫어 견디어 왔던 앞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할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단순한 믿음만으로 불교계 언론의 미래를 낙관할 수는 없다. 만사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투자를 대폭 늘리고 인력도 양성하여 새로운 목표를 향해 한단계씩 도약할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지향점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사회의 언론환경, 통신수단이 어느 곳을 향해 변화해 가고 발전해 가는지를 살펴보면 금세 알 수 있다. 거기에 불교언론이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사이버 세상과 급변하는 통신수단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언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세상의 변화를 추종할 것 아니라 변화를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만들 준비를 해야 한다. 이를 간파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다. 인터넷 세상으로 언론의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지만 기존 매체패턴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불교계 신문의 경우 아직 상당기간 그 가치는 유효하다. 장년층 신도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인이 주는 메시지는 앞으로 포교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뉴스를 중심으로 할 경우 속도감 등에서 인터넷과 경쟁이 되지 않으므로 보다 유익하고 감동적인 내용으로 구독자를 끌어올리는 제작 스타일의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요컨대 변화해가는 언론환경을 따라가면서 기존의 패턴을 개선해 보도기능과 전문 포교매체로서의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불교언론이 향후 지향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한다.

어 한 차원 높은 새로운 도약을 이룩해야 할 기로에 섰다. 새로운 생존방식을 설정할 때가 된 것이다. 인터넷세상으로 과감히 뛰어 들어가야 하고 유비쿼터스시대 대대해야 한다. 그러나 불교계 내부를 들여다보면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한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듯하다. 인식의 전환이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불교언론은 지금까지 열악한 환경을 꿰뚫어 견디어 왔던 앞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할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단순한 믿음만으로 불교계 언론의 미래를 낙관할 수는 없다. 만사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투자를 대폭 늘리고 인력도 양성하여 새로운 목표를 향해 한단계씩 도약할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지향점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사회의 언론환경, 통신수단이 어느 곳을 향해 변화해 가고 발전해 가는지를 살펴보면 금세 알 수 있다. 거기에 불교언론이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사이버 세상과 급변하는 통신수단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언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세상의 변화를 추종할 것 아니라 변화를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만들 준비를 해야 한다. 이를 간파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다. 인터넷 세상으로 언론의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지만 기존 매체패턴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불교계 신문의 경우 아직 상당기간 그 가치는 유효하다. 장년층 신도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인이 주는 메시지는 앞으로 포교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뉴스를 중심으로 할 경우 속도감 등에서 인터넷과 경쟁이 되지 않으므로 보다 유익하고 감동적인 내용으로 구독자를 끌어올리는 제작 스타일의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요컨대 변화해가는 언론환경을 따라가면서 기존의 패턴을 개선해 보도기능과 전문 포교매체로서의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불교언론이 향후 지향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한다.

어 한 차원 높은 새로운 도약을 이룩해야 할 기로에 섰다. 새로운 생존방식을 설정할 때가 된 것이다. 인터넷세상으로 과감히 뛰어 들어가야 하고 유비쿼터스시대 대대해야 한다. 그러나 불교계 내부를 들여다보면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한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듯하다. 인식의 전환이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불교언론은 지금까지 열악한 환경을 꿰뚫어 견디어 왔던 앞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할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단순한 믿음만으로 불교계 언론의 미래를 낙관할 수는 없다. 만사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투자를 대폭 늘리고 인력도 양성하여 새로운 목표를 향해 한단계씩 도약할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지향점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사회의 언론환경, 통신수단이 어느 곳을 향해 변화해 가고 발전해 가는지를 살펴보면 금세 알 수 있다. 거기에 불교언론이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사이버 세상과 급변하는 통신수단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언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세상의 변화를 추종할 것 아니라 변화를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만들 준비를 해야 한다. 이를 간파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 21세기를 여는 천년의 고도 불교문화의 중심지 경주 공기맑고 교통편리한 주말가족형 2만여평의 생활 체험공원과 템플스테이 빌리지건설 5만원 회비 동참으로 전통적 문화유산 동대사 문화관을 창건하여 문화유산과 이름을 후세에 남기실분 동참하신 회원님께는 회원카드와 5만원 이상의 인장(도장)을 정성껏 제작하여 드리며 문화관 이용을 연중 1박 2일 평생 무료 이용 혜택을 드립니다

**동대사 문화관 조감도**

- 1 대웅전
- 2 삼성각
- 3 종각
- 4 오사채
- 5 송학관(상선도 수행관)
- 6 목련관(하선도 수행관)
- 7 탑
- 8 문화관

1. 주5일 근무제 확대와 월빙 얼음으로 가족끼리 1박2일의 주말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도시인의 쉼터 웰빙 템플스테이 빌리지 불교 복지 문화사업으로 공기 맑고 교통 편리한 이곳에 종합불교 문화관을 건설하여 쉬면서 참선 수행하는 문화관으로 일반신도, 청소년 사회단체의 수련회, 이벤트 행사 및 문화강좌와 체력단련으로 자신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행복해 질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하여 회원님을 모시겠습니다.
2. 회원님들께는 동대사 문화관 청년 명부책을 제작하여 기념관에 영구히 소장합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이름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4계절 풍부한 관광자원 인접한 위치의 종합리조트, 골프장, 눈썰매장, 해수욕장 5분거리
4. 주소 성명과 글씨체 번호를 전화 또는 FAX로 보내주시면 정성껏 제작하여 보내드립니다. 인터넷을 보시면 인장재료도 있습니다.

◀찾아오는 길

고인체 1, 고인체 2, 인진체 1, 인진체 2, 인진체 3, 인진체 한글, 예서체, 소전체, 법안한글, 법안초서, 한글고인체, 직인, 개인, 결재인, 인장씨체

**신청방법** | 동참회비 : 5만원 | 국민은행 657201-04-073302 / 동 협 835-12-427378 | 상담전화 : 052)281-3357~8 / FAX 052)281-3359 / www.temple-stay.net |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 2동 48-14(4층) 동대사 문화관 건축 추진사무소